

유전 현상

42.

일반 유전 [H]

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(가)~(라)에 대한 자료이다.

- (가)~(라)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에 있고, (가)~(다)의 유전자는 (라)의 유전자와 다른 염색체에 있다.
- (가)는 대립유전자 A와 a에 의해, (나)는 대립유전자 B와 b에 의해, (다)는 대립유전자 D와 d에 의해, (라)는 대립유전자 E와 e에 의해 결정된다.
- (가)~(라) 중 ①가지 형질은 각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가 소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. 나머지 ②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지 않고, 3 가지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. ③과 ④은 1과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.
- P의 유전자형은 AaBbDdEe이고, P와 Q는 (가)~(다)의 표현형은 서로 같으며, (라)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.
- P와 Q 사이에서 ⑤가 태어날 때, ⑥가 (가)~(라) 중 적어도 3 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이형 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은 $\frac{3}{8}$ 이고, ⑦의 (가)~(라)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은 $\frac{1}{8}$ 이며, ⑧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중 AABBDEE가 있다.

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?

(단,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.)

————— <보기> ————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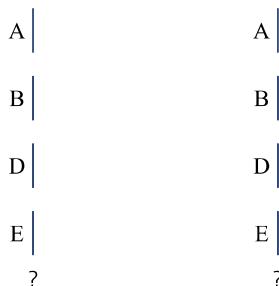
- ㄱ. ④은 3이다.
- ㄴ. Q에서 a, b,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.
- ㄷ. ⑧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8가지 이다.

[Comment 1] 상염색체의 존재성 조건

'(가)~(라)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에 있다.'라는 조건은 상염색체 중 '몇 개의 상염색체'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조건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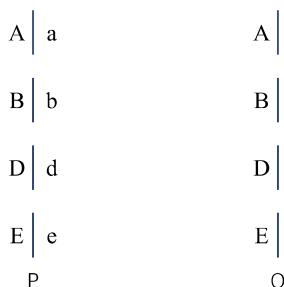
[Comment 2] 유전자형의 존재성 그리고 표현형 조건의 해석

ⓐ의 유전자형이 AABBDDEE일 수 있으므로 P와 Q의 염색체 지도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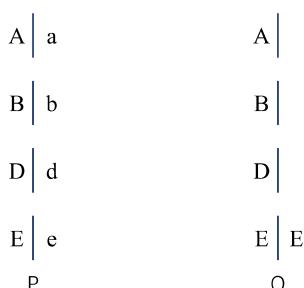
(\because 연관 상태를 판단할 때는 All 독립인 상황으로부터 출발한다.)

이때 P의 유전자형은 AaBbDdEe이므로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.



(라)가 완전 우성 유전이라면 P와 Q의 (라)의 표현형이 다를 수 없다.

그에 따라 (라)는 중간 유전을 나타내고, Q의 (라)의 유전자형은 EE이다.



유전 현상

[Comment 3] 상댓값의 합 해석

All 독립인 상황일 때 P와 Q 사이에서 ①가 태어날 때, ②가 (가)~(라) 중 적어도 3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이형 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은 $\frac{5}{16}$ 이다.

이때 확률의 분모 (상댓값의 합) 가 8(2의 3승)이므로 (가)~(라)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한다.

$\begin{array}{c c} 1 & 0 \\ \hline 1 & 0 \end{array}$	$\begin{array}{c c} 1 & \\ \hline 1 & \end{array}$
$\begin{array}{c c} 1 & 0 \\ \hline & \end{array}$	$\begin{array}{c c} & 1 \\ \hline & \end{array}$
$\begin{array}{c c} & e \\ \hline E & \end{array}$	$\begin{array}{c c} & E \\ \hline E & \end{array}$
P	Q

(\because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는 1, 소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는 0으로 나타내었다.)

[Comment 4] 단위 확률 분할

①의 (가)~(라)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은 $\frac{1}{8}$ 이므로

단위 확률로 분할하면 $\frac{1}{2} \times \frac{1}{2} \times \frac{1}{2}$ 이다.

단위 확률	염색체 넘버링
$\frac{1}{2}$	1번
$\frac{1}{2}$	2번
$\frac{1}{2}$	3번

$\begin{array}{c c} 1 & 0 \\ \hline 1 & 0 \end{array}$	$\begin{array}{c c} 1 & \\ \hline 1 & \end{array}$	$\begin{array}{c c} & e \\ \hline E & \end{array}$	$\begin{array}{c c} & E \\ \hline E & \end{array}$
P	Q		

단위 확률에 $\frac{3}{4}$ 과 10! 존재할 수 없으므로

2번 염색체 간 교배는 1/0과 1/0의 교배가 되어야 하며 2번 염색체 위 유전 형질은 중간 유전을 나타내야 한다.

\therefore 중간 유전을 나타내는 형질은 (가)~(라) 중 3개이고, 완전 우성 유전을 나타내는 형질은 나머지 1개이다.

[Comment 5] 중간 유전의 특징

중간 유전을 나타내는 형질은 표현형이 같으면 유전자형이 동일해야 한다.
이를 염색체 지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.

		단위 확률	염색체 넘버링
1 0	1 1	$\frac{1}{2}$	1번
1 0	1 0	$\frac{1}{2}$	2번
E e	E E	$\frac{1}{2}$	3번
P	Q		

\therefore 1번 염색체에 있는 어떤 대립유전자를 중간 유전으로 간주하더라도
일반성을 잃지 않는다.)

[Comment 6] 확률 연산

		단위 확률	염색체 넘버링
1 0	1 ②	$\frac{1}{2}$	1번
1 0	1 0	$\frac{1}{2}$	2번
E e	E E	$\frac{1}{2}$	3번
P	Q		

만약 ②가 1이라면 P와 Q 사이에서 ②가 태어날 때,
②가 (가)~(라) 중 적어도 3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
이형 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은 $\frac{5}{16}$ 이어야 한다.

이는 모순이므로 ②는 0이어야 한다.

유전 현상

[Comment 7] 선지 판단

			단위 확률	염색체 넘버링
1 0	1 0		$\frac{1}{2}$	1번
1 0	1 0		$\frac{1}{2}$	2번
E e	E E		$\frac{1}{2}$	3번
P	Q			

ㄱ. ⑦은 1이다. (✗)

ㄴ. Q에게서 a, b,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. (○)

ㄷ. ⑧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8가지이다. (○)

답은 ㄴ, ㄷ이다.

[Comment 8] 닮은꼴 문항 (1)

닮은꼴 문항과 함께 본 문항의 논리를 복습해보자.

[2024학년도 수능]

13.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(가)~(다)에 대한 자료이다.

- (가)~(다)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다.
- (가)는 대립유전자 A와 a에 의해 결정되며, A는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.
- (나)는 대립유전자 B와 b에 의해 결정되며,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.
- (다)는 1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, 대립유전자에는 D, E, F가 있다. D는 E, F에 대해, E는 F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.
- P의 유전자형은 AaBbDF이고, P와 Q는 (나)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.
- P와 Q 사이에서 ①가 태어날 때, ②가 P와 (가)~(다)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은 $\frac{3}{16}$ 이다.
- ③가 유전자형이 AAbbFF인 사람과 (가)~(다)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은 $\frac{3}{32}$ 이다.

④의 유전자형이 aabbDF일 확률은? (단,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.) [3점]

- ① $\frac{1}{4}$ ② $\frac{1}{8}$ ③ $\frac{1}{16}$ ④ $\frac{1}{32}$ ⑤ $\frac{1}{64}$

답은 ④ $\frac{1}{32}$ 이다.

[Comment 9] 닮은꼴 문항 (2)

닮은꼴 문항과 함께 본 문항의 논리를 복습해보자.

[2025학년도 수능 대비 주간 디올 5권]

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⑦~⑩에 대한 자료이다.

- ⑦~⑩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에 있다.
- ⑦은 대립유전자 A와 a에 의해, ⑧은 대립유전자 B와 b에 의해, ⑨은 대립유전자 D와 d에 의해, ⑩은 대립유전자 E와 e에 의해 결정된다.
- ⑦~⑩ 중 3 가지 형질은 각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. ⑪나머지 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지 않고, 3 가지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.
- 유전자형이 $AaBbDdEe$ 로 동일한 P와 Q 사이에서 자손 ⑪가 태어날 때, 이 자손이 ⑦~⑩ 중 적어도 3 가지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을 이형 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은 $\frac{5}{16}$ 이다.
- 유전자형이 $AabbDdee$ 인 R과 $AabbddEe$ 인 S 사이에서 ⑫가 태어날 때, 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8 가지이고 유전자형이 $aaBbddEe$ 인 T와 $AabbDDEe$ 인 U 사이에서 ⑭가 태어날 때, ⑮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2 가지이다.

P와 U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, 이 자손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은?

답은 $\frac{3}{16}$ 이다.